

追 悼 辭

먼저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 해일로 희생된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과 커다란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지진 피해의 참상 앞에 큰 충격과 깊은 탄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침착함과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일본 국민들의 의연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을 일구어낸 일본 국민들의 저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의 이와 같은 저력이 이번 지진 피해 극복에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고, 슬픔에 젖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자비(慈悲)를 실천하는 불교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볍디가벼운 백지 한 장이지만 마주 들면 힘이 덜 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국의 불교도들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는 일본 국민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지진으로 희생된 모든 사망, 실종 영가들이 아미타불(阿彌陀佛)의 큰 위신력에 가피입어 모두 반야용선(般若龍船)에 올라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상품상생(上品上生)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본사아미타불.

불기 2555(2011)년 5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慈乘 합장